

‘6월 모평’ 지난해 수능보다 표준점수 하락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광주진학부장협의회 가채점 결과

영어 영역, 고난도 문항 적게 출제 고득점자 많아져

시교육청 7월 3일 결과 분석·수시지원전략 설명회

지난 4일 치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체감한 난도는 높았으나 지난해 수능에 비해 표준점수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6월 모의평가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1등급(90점 이상) 학생수는 전체의 7~8%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수능 1등급 비율 5.3%보다 높은 것으로, 고난도 문항이 더 적게 출제돼 고

득점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과목별 1등급은 국어 87점, 수학(가형) 88점, 수학(나형) 89점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는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국어·사회·역사교육과가 각각 282점이며 경영대학은 291점, 경제학부 288점 등이었다. 자연계열 의예과 296점, 수학교육과 278점, 건축학과 276점, 간호대학 272점, 물리교육과 275점 등으로 분석됐다.

연세대는 경영학과와 경제학부가 각각

282점, 사회학과 280점, 의예과 288점, 치의예과 281점, 기계공학부 274점으로 예상됐다.

고려대도 경영대학과 경제학과가 각각 282점으로, 국어·영어교육과도 각각 279점이었다. 의과대학은 287점, 수학교육과 272점, 컴퓨터학과 272점은 언어야 진학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 가능 점수는 265점, 광주교육대학교는 인문계열 252점, 자연계열 244점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학과 250점, 국어교육과 247점, 행정학과 245, 경영학부 240점, 정치외교학과 233점, 국어국문과 231점으로 파악됐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1점과 치의학과 274점을 비롯해 수의예과 261점, 전기공학과 243점, 수학

교육과 241점, 간호학과 230점, 수학과 226점이었다.

조선훈대는 영어교육과 216점, 국어교육과 211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점수는 159점 내외로 예상됐다. 의예과는 275점, 치의예과는 273점, 간호학과 223점, 수학교육과 210점, 기계공학과 185점이었다.

이번 모의평가가 결과는 오는 25일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으로,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만 표기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모의평가 실재점 결과를 분석해 7월 3일 오후 2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수시지원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대 호심도서관 다독상 시상식 광주대학교가 학생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독서 정려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은 최근 학교 PBL전용강의실에서 2019학년도 1학기 도서 다독상 시상식을 가졌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LINC+창의 인재육성 30억 투입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산업체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발맞춰 117억 원이 투입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교육과정 개발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에 선정된 광주대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과 지역 사회 및 지역산업체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했다. 중점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양성 ▲현장미러형 실습 공간 활성화 및 산학

협력 교육 강화 등이며 오는 2021년까지 지속한다.

광주대는 앞서 1단계 사업으로 28억여 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과정 산업체 공동 개발 및 운영 ▲산업체 현장미러형 실습 환경 구축 ▲혁신적 교육방식의 개발 및 적용 등을 수행했다. 특히 광주대는 하계방학기간 동안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1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 현장실무교육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기술과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컴퓨터공학과를 비롯해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학부(시각영상디자인전공), 융합소프트웨어학과가 참여하며 4주에서 8주 동안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A) 등급

사업비 32억원 확보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최근 발표된 2019년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점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A)에 선정돼 올해 약 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대학 규모를 반영한 포괄수익에 따라 배분된 연속 사업비와 연차 평가에 의한 자동 사업비를 합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목포대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발

전 선도 창의융합 교육 혁신 사업의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남도 네오르네상스 CREAT 산업의 지역 중심 국립대학으로서의 차별적 역할 수행, 타 국립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의 충실성 부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목포대 송하철 기획처장은 “최근 연이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목포대가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는 자기혁신 과정을 통해 이룩한 성과가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중심대학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봉산유치원 알뜰시장 열어 불우이웃 돕기 성공

광주 봉산유치원(원장 서미숙) 원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알뜰시장’ 행사를 열고 수익금 50만8000원을 첨단2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불우이웃 돕기 성공으로 기탁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호남대 ‘꿈 이루는 교육가치 창출 1위 대학’ 선포

‘비전 2028’ 중장기 발전계획...5대 혁신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개교 5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대학교육과 산학·연구, 국제역량, 학생지원, 대학경영 등 5대 부문의 혁신을 통해 ‘교육가치 창출 1위 대학’이 되겠다는 목표를 담은 ‘호남대 VISION 2028’을 내놓고, ‘대학교육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오는 15일로 개교 41주년을 맞는 호남대가 발표한 ‘VISION 2028’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

학’을 슬로건으로 5대 발전 전략과 20개 전략과제, 단계별 발전목표와 재정투자를 집행해 국가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호남대는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사업과 연계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지역상생을 위한 산학·연구 혁신, 대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역량 혁신, 학생 꿈 실현을 위한 학생지원 혁신,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경영 혁신 등

5대혁신 발전전략과 함께 20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해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기(2019~2021)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도약기(2022~2024), 지역상생과 협력을 통한 대학혁신 정착기(2025~2028) 등 3단계의 단계별 발전목표도 수립했다.

비전달성을 위한 종합 재정투자 계획도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업거기에 기반한 자원배분 원칙, 재원의 합리적 배

분을 통한 효율성 증진 등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웠다.

먼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에 자체 예산 447억 원, 대학혁신사업예산 115억 원, 기타 정부지원 사업 예산 152억 원 등 모두 714억 원을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유일의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는 교육부 지방대특성화(CK-1)사업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데 이어, 자율개선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생동 | 복강경수술

정효원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원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